

전쟁기의 여성 젠더 의식

- 정비석의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

이상화*

1. 머리말
2. 한국전쟁기 여성인물의 설정과 시대상
3. 삼각연애 갈등의 내면화와 전쟁미망인의 젠더의식
4. 공포와 원한의 십자가와 가부장제의 희생양
5. 맺음말

국문요약

정비석은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自由夫人』이 화제작으로 주목받으면서 “대중소설작가”라는 세평을 듣게 되고 본격적인 전업 작가이며 대중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까지 정비석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자유부인』에 집중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중문학에 대한 인식이 한국문단에 확산되면서 『자유부인』을 위시한 여타한 정비석의 대중문학 적 작품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쟁기 『영남일보』에 연재된 신문연재소설 『世紀의 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품상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이 처한 현실을 통해 전쟁기의 시대상을 살펴보는 한편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삼각연애 갈등양상을 통해 전쟁기 미망인의 현실과 젠더의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전쟁은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특히 다수의 남성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가장이 이 부재한 가정이 속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남편이 부재한 전쟁미망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당시 전쟁미망인들은 생활고

* 상명대학교 강사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나이에 육체적인 고독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타락한 성윤리가 부각되었다.

정비석의 『世紀의 鐘』에서는 당시 전쟁미망인이 처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여주인공 민영심은 한국전쟁으로 남편이 북으로 납치되어 실종된 상태에 처하면서 전쟁미망인이 되고 만다. 민영심은 당시 전쟁미망인들이 처한 정서적 육체적 고독과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에 종속된 여성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불행한 미망인의 정서를 현실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가부장제에 대한 원한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이러한 여주인공 민영심의 죽음은 전쟁기 여성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미망인을 오히려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남성 젠더의 가부장제 의식에 의한 희생양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정비석, 전쟁미망인, 육체의 고독, 가부장제, 젠더의식)

1. 머리말

1911년 평북 의주에서 출생한 정비석은 일본 문과대학 수학 중인 1932년 대학신문 현상단편소설공모에 「조선아이로부터 일본아이에게」로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다. 이후 1935년 콩트 「여자」가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동아일보』에 시와 소설을 연일 발표한다. 1936년에는 비석생(飛石生)이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졸곡제」가 입선하게 되며, 1937년에는 남촌(南村)이라는 가명으로 응모한 「성황당」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또다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 창작에 입문하게 된다. 이후 1940년대 「제신제」, 「고고」, 「한월」 등의 작품을 발표하고, 일제말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매일신보기자로 재직한다.

전쟁기에는 대구로 피난하여 신문발행, 사병문고 발행 등에 힘쓰는 한편 육군중군작가단의 일원으로 일선에서 중군활동을 하면서 『영남일보』에 신문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다.¹⁾ 정비석은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자

『자유부인』이 화제작으로 주목받으면서 “대중소설작가”라는 세평을 듣기에 이른다.²⁾ 이후 정비석은 본격적인 전업 작가로서 생활하면서 다수의 대중적 작품을 창작한다.³⁾

정비석의 작품에 관한 당대의 논의는 주로 사랑과 성, 애욕의 문제와 결부된 작품경향에 주목되고 있으며⁴⁾ 작가 스스로도 그 점에 대해 거부감 없이 인정하고 있다.⁵⁾ 이후 정비석은 초기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낭만적으로 묘사면서 인간의 본능을 그리던 작가에서 애정물을 다루는 작가로 인식되어 왔다.⁶⁾

정비석에 대한 연구동향은 주로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만큼 『자유부인』에 집중되고 있다.⁷⁾ 이후 정비석에 대한 논의는 『자유부인』을 위시

- 1) 전쟁기에 연재한 신문연재소설은 『여성전선』(『영남일보』, 1952.1.1.~7.9), 『세기의 종』(『영남일보』, 1953, 1.1~7.22), 『인생화첩』(『국제신보』, 1951.10.1.~17), 『호색가의 고백』(『연합신문』, 1952.5~) 등이 있다.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32, 2007.12, 307쪽)
- 2) 김지영, 정비석초기연애소설연구, 부산대석사학위논문, 2002.2, 4쪽.
- 3) 1960년대는 『명기열전』, 『퇴계소전』 『김삿갓』, 『손자병법』, 『초한기』, 『삼국지』 등 대중역사물을 대거 발표한다. (정종현, 미국해게모니하 한국문화재편의 젠더정치학, 『한국문학연구』35, 2008.12, 152~153쪽)
- 4) 김남천, 신진소설가의 작품세계, 『인문평론』, 1940.2.
- 5) 신진작가좌담회, 『조광』5권 1호, 1939.
- 6) 정한숙은 정비석의 작품세계는 자연적 배경에서 도시적 배경으로 이동하면서 원시적 건강성과 소박함에서 숙된 에로티시즘으로 변모하였다고 보고 있다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77).
- 7) 『자유부인』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한숙,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출판부, 1977, 97~148쪽;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 『국문학보』14, 1997, 49~88쪽;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관한 연구」, 『우암어문논집』7, 1997. 3, 86~127쪽; 강진호, 전후 세대와 소설의 존재방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3집, 2000, 5~23쪽;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김일영, 정비석의 신문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풍속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4, 2003, 35~50쪽; 서현석, “자유”와 “부인”의 불가능한 변증법-자유부인에 나타난 단절의 미학, 『영화연구』 22집, 2003.12, 124~144쪽; 추창규, “노란 피부, 하얀 가면무도회”로서 자유부인의 층무로 여성관객에 관한 분석, 『영화연구』 21집, 2003;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5권 1호, 2004.6, 27~54쪽; 최미진, 부인명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연구, 『현대소설연구』 21호, 2004, 185~203쪽; 김영애, 자유부인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28, 2005, 207~226쪽; 박윤희, 자유부인에 나타난 1950년대 멜로드라마의 변화, 『문학과 영상』 6권 2호, 2005.11,

한 정비석의 대중 지향적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⁸⁾ 최근에는 정비석의 작품 중 전전기 작품과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중소설의 매체인 신문소설의 특징과 정비석의 창작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대중성의 미학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⁹⁾

본고에서는 『영남일보』에 1953년 1월 1일에서부터 7월 22일까지 연재한 전전기 신문연재소설인 『세기의 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자유부인』이 누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영남일보』에 연재된 작품 중 신문연재소설의 면모를 갖춘 작품이며, 전전기의 시속을 전쟁미망인의 정서와 젠더 의식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비석의 전전기 신문연재소설인 『세기의 중』을 통해 구현된 전전기 여성의 현실과 젠더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2. 한국전쟁기 여성인물의 설정과 시대상

정비석의 『세기의 중』은 전쟁 미망인을 중심으로 한 애정갈등과 전전기 여성의 불행을 다룬 작품이다. 한국전쟁은 물적 피해는 물론 다수의 남성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가장이 부재한 가정이 속출하고 전쟁미망인들은 부양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직업전선에 나서게 되었다.¹⁰⁾ 전쟁 미망인의 문제

28~39쪽;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2005, 139~165쪽; 강찬모, 부인명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의 자각과정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5집, 2007. 6, 263~279쪽.

- 8) 초기소설을 연애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와 정비석의 초기작에서 1960년대 까지 대표적 작품을 ‘대중문학의 윤리의식’이라는 관점으로 논의한 연구가 있다(김지영, 정비석 초기연애소설연구, 부산대석사학위논문, 2000.2; 안미영, 정비석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고찰, 『개신어문연구』 21, 2004).
- 9)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연구』-소설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2, 2007.12, 305~330쪽;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 18, 2007.12, 119~153쪽;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 와 위협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정비석의 『유혹의 강』(1958)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2010.12, 211~229쪽.
- 10) 전쟁미망인은 군인, 경찰관, 제2국민병, 민간인 등으로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 생존을 위해 첩, 유엔레이디, 다방마담 등 불명예직종에

는 생계, 구호대책 등 생존적 측면이나 생리적인 욕구의 해결보다는 ‘미망인의 타락한 성윤리가 여성 일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하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문제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여성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¹¹⁾ 정비석의 『세기의 종』에서는 전쟁 미망인, 비즈니스걸, 아프레 걸, 도시이주농촌여성 등 한국 전쟁기에 대두되었던 다양한 여성인물들을 통하여 전쟁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비석의 『세기의 종』 여주인공은 30대의 민영심이다. 민영심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한성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전통적 여성상을 보여주는 인물로 한국전쟁 중에 남편이 북으로 납치되어 전쟁미망인이 되는 불행에 처하게 된다. 민영심은 “생과부”이지만 “머리를 숙으려 채 얌전히 걸어오는 모습이 미인”이며, “납치된 남편의 문패”를 여전히 걸어두고 있는 “정숙한 마음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¹²⁾ 민영심의 외양적인 자태와 태도는 남성젠더의 시각에 의해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찬사에는 남편의 존재를 잊지 않은 전통적 여성에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비록 민영심은 전쟁미망인이지만 시대의 귀감이 되는 긍정적인 여성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상에서 민영심은 전쟁미망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이 받은 피해와 불행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여자의 행복이란 그렇게도 얻기 어려운 것이든가)

도대체 오늘이라는 시대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참다운 행복이란 이미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육이오사변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이 나라의 질서를 여지없이 변동시켰거니와, 그 중에도 가장 처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아닌가 싶었다. 안혜옥은 사랑하는 사람이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고 민영심 자신은 남편이 북으로 납치되었기 때문에 불행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은 실례에 불과 하다. 그 밖에도 전몰 군인의 미망인

중사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이입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8, 2000.12, 13쪽.) 여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극복하고 생계를 꾸러가기 위해 직업전선으로 참여가 불가피했다.(최일성·김현정, 『한국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195쪽.)

11) 이입하, 앞의 책, 10~11쪽.

12) 정비석, 『세기의 종』, 세문사, 1954, 89~90쪽. 이하 쪽수만을 수록한다.

들이 얼마나 많으며, 매음의 거리에 율락된 여성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뿐 아니라 이제 와서는, 생활난으로 가정 부인까지 임신을 기피하게 되었다. 안혜옥의 말을 그대로 빌어온다면 죽어서 세상을 잊어버린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비참할 지경인 것이다.¹³⁾

이와 같이 한국전쟁은 나라의 질서와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 그 가운데도 다수의 전몰미망인과 경제난으로 인한 율락여성의 대두 등 여성의 피해는 더욱 컸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생활난으로 인해 임신을 기피하고, 인공유산을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기의 종』에서는 젊은 여성 안혜옥을 통해 전쟁 시 여성의 불행상을 반영하고 있다.

안혜옥은 여대졸업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공산당원이었기에 인공유산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안혜옥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현대적 여성인물로 설정되어 있다.¹⁴⁾ 이는 다음과 같은 안혜옥의 내면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안혜옥은 기어코 유산수술을 하고야 말았다. (중략) 안혜옥은 그날 저녁에 퇴원하였다. 이로써 공산주의자였던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청산된 셈이다. 이제 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다행히 취직은 예 약 되어있지만, 여자 혼자 살아나가자면 유혹이 많을 것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경제적으로 토대 없이 자립해 가려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의 유혹 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유혹을 교묘히 이용하면 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이번 수 술비용도 이상태의 돈이 아니었던가.¹⁵⁾

안혜옥은 인공유산으로 공산주의자였던 남편과의 인연을 청산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서(BG)로 취직한다. 안혜옥은 당시 남성들이 여자비서에 대해 “향락을 누리려는 목적”과 “정신적인 매소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써비스를 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것은 여자 혼자서 거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것이며, 경제적인

13) 정비석, 앞의 책, 19쪽.

14) 정비석, 앞의 책, 81쪽.

15) 정비석, 앞의 책, 131~132쪽.

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¹⁶⁾ 안혜옥은 전통적인 민영심의 여성상과는 대조적으로 “그냥 미인이라기보다도, 어딘가 면도칼처럼 예리하면서도 요부처럼 요기로워” 보인다. 이러한 안혜옥에 대한 이미지는 한성종합병원 총무인 남재호에 의해 묘사되고 있는데 면도칼 같은 예리함은 현대적인 면모를, 요부 같은 요기는 율락녀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전쟁기 당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던 아프레 걸의 면모를 남성젠더의 시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기의 종』에서는 아프레 걸적인 면모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장선희가 있다. 장선희는 민영심의 옆집에 사는 30대 후반의 정체불명의 여성이다. 전쟁기 당시 유행풍조였던 댄스파티를 주도하며 향락적이며 퇴폐적인 생활에 자신을 투신하는 인물이다. 사업가인 이상태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며 사업적인 거래를 하기도 한다.

장선희는 사실 질투를 모르는 여성이었다. 모든 남성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는 대신에, 어느 남성에게나 구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하고나 기분만 맞으면 대담하게 몸을 해방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모두가 그만이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어온다면 그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일종의 ‘외입’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상태가 안혜옥이라는 여자비서에게 몸이 달아하거나 맡거나 조금도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었다.¹⁷⁾

이와 같이 장선희는 “누구하고나 기분만 맞으면 대담하게 몸을 해방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모두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다. 이는 전쟁기에 타락한 성윤리를 보여주었던 전후파 여성 가운데 육체해방파여성¹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선희는 작품상에서 댄스파티를 주도하며 당시 전후파여성들이 형성된 계기와 타락한 성윤리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쟁미망인 민영심의 첫사랑인 박기철과의 재회에 결정적인

16) 정비석, 앞의 책, 242쪽.

17) 정비석, 앞의 책, 206쪽.

18) 1950년대 댄스홀에 다니면서 타락한 성윤리를 보여주는 여성 집단을 전후파여성, 아프레 걸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들은 가정해방파와 육체해방파로 분류되어 진통을 말살시키고 윤리기강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열풍 :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2009.4, 290쪽).

계기를 마련해주어 서사의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세기의 종』에서는 전쟁기 도시로 이주한 농촌여성인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한성종합병원 간호사인 허정자로 병원총무인 남재호를 사랑한다. 그러나 실상은 남재호가 병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허정자의 육체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는 남재호가 허정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인공유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만다.

허정자는 시골로 데리고 간다는 바람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시골에 파묻쳐서 일생을 헛되게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애시당초 남재호에게 농락을 당하게 된 것도 허영때문이었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구라면 또 모르지만,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이었다. 그렇건만 남재호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저를 시골로 데리고 가겠노라고 말하지 않는가. 19)

결국 허정자는 남재호의 꾀임에 넘어가 인공유산을 하지만 남재호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허정자의 불행의 원인을 허영에서 찾고 있다. 이는 결국 인공유산을 선택하고 모성애를 포기한 것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현모양처”의 개념과 함께 모성민족주의를 통해 국가, 민족, 가정을 유지하고 여성을 통제·관리²⁰⁾하고자 했던 당시 남성젠더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기의 종』에서는 전쟁기 여성인물의 형성화를 통해 당시 전쟁기 여성의 불행한 현실을 다각도로 반영하고 있다. 1950년대 발발한 한국전쟁이 3년간 지속되면서, 이념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국가재건과 자본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된다.²¹⁾ 한편 1949년 말 남북한정권수립 후 이미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도록 원조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미국식

19) 정비석, 앞의 책, 305쪽.

20) 이러한 모성민족주의는 전후 국가권력을 통해 구체화된다. 1955년 어머니날의 제정과 1956년 전쟁미망인과 모범 어머니 표창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주창윤, 앞의 책, 291쪽).

21) 강만길, 『고쳐 쓴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215~228쪽; 한국학역사연구회, 『역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74~376쪽.

향락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향락문화에의 몰입이라는 사회현상을 양산하기도 했다.²²⁾

세기의 종』에서는 향락문화의 대표적 현상이었던 댄스열풍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해방 직후 낙랑클럽과 미군들이 유행시킨 댄스열풍²³⁾은 전쟁 중에도 성행하였다. 이러한 유행풍조는 댄스가 한국전쟁의 처참한 현실을 자유, 민주주의 등의 시대정신과 함께 미국에 대한 동경을 관념화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²⁴⁾ 이는 전쟁 중에도 댄스홀이 성행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²⁵⁾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그러는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는 사변 이후에 오히려 댄스가 대유행이어서, 피난 중에도 가끔 파티에 초대를 받았지만, 민영심은 일체 거절해 왔다. 그래서 오늘도 거절할 생각으로 (중략)

「그러지 마시고 꼭 오세요. 댁에서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댄스로 소일이나 하시지 왜 그러세요. 나는 육이오 때에 절실히 깨달은 일인데, 사람이란 괜히 이러니저러니 하지만 살아 있을 때에 마음껏 춤도 추고 즐겁게 놀기도 해야겠다. 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괜히 끔찍거릴 필요가 생각했어요. 아주 그 점에는 달관했어요.……호호호.」

장선희는 그렇게 지껄이며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달관』이었다. 부산과 대구 등지에 댄스가 성황하는 것도 그런 달관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민영심은 등골이 오싹해왔다. 나라가 망하거나 민족이 망하거나 목숨이 붙어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개인의 향락만 누리려는 퇴폐란 사상-그런 사상이야말로 공산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사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²⁶⁾

육체해방파인 장선희는 전쟁을 겪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니

22) 1947년 미공보원 설치 이후에 미국식 생활양식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비평문학』 34, 2009.12, 49~50쪽).

23)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35, 2008.12, 125쪽.

24) 해방 이후 1950년대 내내 ‘민주주의’와 ‘자유’는 댄스열풍과 함께 최고의 유행어였다(주창윤, 앞의 책, 292~293쪽).

25) 전쟁 중에도 유엔군을 환영한다는 명목 하에 댄스홀이 더욱 늘어나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정도로 범람하였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6.25 전쟁에서 4.19 전야까지 195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4, 106쪽; 주창윤, 앞의 책, 285쪽; 정미경, 1950년대 ‘자유부인’의 성정치, 『여/성이론』 6, 2002.7, 273쪽).

26) 정비석, 앞의 책, 39~41쪽.

마음껏 춤도 추고 놀기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선희에게 댄스파티에 초대받은 민영심은 부산, 대구 등 피난지에서 댄스가 성황하는 원인은 퇴폐의 정서 때문이며, “공산주의 보다 더 무서운 사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심조차도 “시름을 잊기 위해 한바탕 춤을 추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립양상은 전쟁기에 더욱 확고해지고 남한사회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작품상에서 한성종합병원의 운영과 시설개건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충무도 모르게 비밀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빨갱이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어마! 병원시설과 종업원 대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빨갱이 사상일까요?」

「물론이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실에 불평을 품는 사상은 모두 다 빨갱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

그것이 정당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남재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중략)

팔일호 해방 후로, 더구나 육이오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정의파(正義派)의 인사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으로 공사 간에 억울한 핍박을 당해 왔던가?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글의 참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박해하므로써 얼마나 많은 인재를 잃어버리게 되었던가. 그 때문에 인적 재원은 얼마나 손실되었으며, 일반국민의 심리적 불안은 얼마나 욱심하였던가?²⁷⁾

한성종합병원의 총무인 남재호는 병원의 실질적 관리자이지만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자금을 유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재호는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병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종업원의 대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철회할 방안으로 김명세를 위시한 젊은 의사들을 “빨갱이”라는 구실로 병원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과장인 민영심은 “김명세가 서울시 지하운동을 했던 애국자”²⁸⁾임을 강조하며

27) 정비석, 앞의 책, 124~125쪽.

28) 정비석, 앞의 책, 493~494쪽.

이에 대답한다. 이러한 면모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오히려 발전적인 국가재건의 방향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전쟁기 세대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바루 몇칠전에 남재호가 어떤 술좌석에서 이상태에게 경제적 원조를 구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금은 경영이 여의치 않지만, 정부가 서울로 완도하는 날이면 장래성이 상당하다는 것도 역설하였다. 남재호는 병원을 미끼로 삼아, 앞으로는 이상태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는 자기대로 커다란 무역회사를 하나 경영해 보려는 야심이 있었던 것이다.²⁹⁾

이를 통해서 남재호가 “병원시설과 종업원의 대우개선”이라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를 배제하고, 빨갱이사상으로 매도했던 것은 개인적인 물질적 욕망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재호는 당시 국가재건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본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는 사회적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남재호가 자본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사업가 이상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종로 삼가에 있는 「한국뿔딩」 정문에는 커다란 간판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해양상사주식회사서울본사」라는 간판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신한목재주식회사」라는 간판이오, 다른 한편에는 「신한토건회사」라는 간판이었다. (중략) 두 개의 간판은 이상태가 이번에 부산서 올라와 새로 만들어 걸은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태는 무슨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런 간판들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물론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수속도 밟지 않았다. 마침 서울에 올라온 그 날, 유엔은 전세 여하를 막론하고 부산에 한국 재건본부를 설치하고, 한국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기에, 이상태는 그 기사를 보자 그날로 두 개의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을 뿐이었다.³⁰⁾

이상태는 표면적으로 세 개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업적 구상이 있어서 간판을 내건 것이 아니라 “한국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는 기사를 보고 간판을 내걸었을 뿐이다. 이러한 면모는 당시 국가재건의 사회분위기를 틈타서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

29) 정비석, 앞의 책, 31~32쪽.

30) 정비석, 앞의 책, 63~64쪽.

회세대를 반영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기의 종』에서는 다양한 인물군상과 세대를 통해 전쟁기 향락문화의 대표적인 댄스문화, 국가재건과 자본에 대한 갈망, 반공이데올로기 인식 등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3. 삼각연애 갈등의 내면화와 전쟁미망인의 젠더의식

정비석의 『세기의 종』은 여주인공인 전쟁미망인 민영심을 중심으로 삼각연애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30대 젊은 여성 민영심은 비록 남편이 한국 전쟁의 와중에 납치되어 ‘생과부’ 처지가 되었으나 한국의 전통적 여성의 기품을 지녔으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터라 남성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 민영심을 중심으로 첫사랑 박기철과 이상태가 애정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애정의 삼각관계는 대립 양상으로 외면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민영심의 의식세계를 통해 내면화되고 있다.

첫사랑 박기철은 십여 년 전 민영심이 동경 S의학전문 학생 시절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졸업 후 귀국하여 강제결혼을 하게 되면서³¹⁾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추억으로만 마음 속에 남겨진다. 그러나 민영심은 장선희가 초대할 댄스파티 석상을 계기로 박기철과 재회하게 된다.³²⁾

그럼, 우리 한번 추어보실까요?

박기철은 민영심의 앞으로 걸어와서 손을 가만히 내밀며 말하였다.

민영심은 명상에 잠긴 얼굴을 고즈넉이 들며 박기철의 품에 살며시 안겼다. 그러나 민영심에게는 자기를 안아 주는 사람은 박기철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환각이었으리라, 그러나 민영심은 행복스러운 환상을 안으며 넓은 홀 한복판으로 스텝을 밟아나갔다.³³⁾

31) 정비석, 앞의 책, 46~47쪽.

32) 정비석, 앞의 책, 45쪽.

33) 정비석, 앞의 책, 52~53쪽.

민영심은 첫사랑 박기철의 품에 안겨 댄스를 추면서도 남편과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다. 남편이 아닌 자와 댄스를 추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을 뒤따라 죽어야 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아내’라는 미망인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존재가 독립적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여성의 젠더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결국 이러한 미망인의 젠더의식은 박기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종교적 사랑의 숭고성”으로 고양시키고 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것이 사랑의 참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
 사랑은 일종의 신앙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거니와, 지금 박기철에 대한 민영심 자신의 감정이야말로 신앙심에 틀림없을 것 같았다.³⁵⁾

민영심은 박기철에 대한 갈망을 거룩한 감정으로 인식하고, 신앙과도 같은 참된 사랑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남편이 없는 전쟁미망인이 가부장제 질서의 구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인 신앙을 통해서만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기철은 부모에 의해 강제결혼을 하게 된 입장으로 사랑이 없는 결혼이 세속적인 형식이라고 인식한다. 그렇지만 가정은 가정대로 유지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첫사랑인 민영심을 사랑하는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첫사랑인 민영심과의 재회 이후, 박기철은 가장인 남편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의 핵심인 가정과 엄숙하고 숭고한 사랑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변호사 박기철은 민영심을 다시 만나게 된 이후로 불면증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겼다. (중략)

(나는 가정을 위해서도 민영심을 만나서는 안된다.) (중략)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 아닌 딴 여성을 그리워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경멸해

34) 이입하, 한국전쟁과 여성의 삶, 『진보평론』 16, 2003.6, 95쪽.

35) 정비석, 앞의 책, 166쪽.

36) 정비석, 앞의 책, 424~425쪽.

도 좋은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경멸에 해당하는 그 감정이 너무나 엄숙하게 느껴 짐을 어찌하랴³⁷⁾

이와 같이 박기철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 아닌 딴 여성을 그리워하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적 갈등은 가부장제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수호하느냐, 결혼제도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적 남성젠더의식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기철은 사랑의 감정에 압도되어 민영심을 찾아갔으나, 이상태를 만나고 있는 민영심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친한 계집이었던가?” 하는 생각과 환멸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작가는 박기철의 환멸감을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일종의 질투의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논평하고 있다.³⁸⁾ 이것은 작가가 민영심과 박기철 사이의 사랑을 종교적으로 숭고한 사랑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종교적이고 숭고한 정신적 사랑을 첫사랑 박기철을 통해서 보여주하고자 했다면 사업가 이상태를 통해서는 전쟁미망인의 육체적 고통과 욕망의 문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³⁹⁾

이상태는 민영심 여사의 얼굴을 한동안 황홀하니 바라보다가, 고요히 불렀다. 그는 물론 지금까지 여자라면 성적 대상으로 밖에 생각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민영심의 가련하고도 거룩해 보이는 얼굴을 대하자, 어쩐지 단순한 성욕의 충동만이 아닌, 어떤 성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그것은 사십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아릿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았을 뿐, 전신에 즐기치게 흐르는 욕망은 민영심을 정복하고 싶다는 야망뿐이었다.⁴⁰⁾

37) 정비석, 앞의 책, 322~323쪽.

38) 정비석, 앞의 책, 348~349쪽.

39) 전쟁미망인들은 세계적 욕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장년층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적 불만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입하,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비평』8, 2000.12, 10쪽).

40) 정비석, 앞의 책, 343~344쪽.

사업가인 이상태는 자본주의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여성에 대해서도 남색가의 태도로 일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민영심에 대해서도 한순간 거룩하고 성스러운 감정을 느끼지만 결국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작가는 사업가 이상태를 통해 여성을 육체적 욕망의 산물로만 인식하는 가부장제 남성젠더의식과 이를 통해 성 도덕과 윤리의 타락상을 반영하고 있다.

민영심은 결혼 이후에 잠옷을 갈아입을 때 거울을 내려다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에게 바치려는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아내로서의 알뜰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⁴¹⁾ 그러나 남편이 납치된 이후로는 “그 누구인가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욕신이 자꾸만 흥분 되고, 남편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고독에 울고 있는 자기 몸을 힘차게 껴안아 주는 이성의 몸을 안타까이 그리워” 하게 된다.⁴²⁾ 이를 통해서 전쟁미망인이 된 이후 민영심은 육체적 고독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심은 댄스파트너였던 배인곤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육체적 만족을 채우기도 하지만 곧바로 후회하며 “자신의 육체를 썩은 고기덩어리처럼 더럽게” 여기며,⁴³⁾ 자기의 행동이 매춘부와 다를 바 없다고 자책한다.

(더러운 화냥년! 이성의 품이 그렇게도 그림더란 말이나)

민영심은 어디선가 그런 욕설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사실이지 자기의 행동은 매춘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유희를 당하고 그 꼴이 되었다면 원망할 상대자나 있으려면, 자진해서 몸을 더럽혔으니 양심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흥! 그 꼴에 양갈보를 경멸했더란 말이지?)

어디서 그런 비웃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⁴⁴⁾

민영심은 남편 이외의 남자에 대해 육체적 욕망의 감정을 품는 것은 매춘부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심의 젠더의식은 전

41) 정비석, 앞의 책, 98~99쪽.

42) 정비석, 앞의 책, 201쪽.

43) 정비석, 앞의 책, 411쪽.

44) 정비석, 앞의 책, 412쪽.

쟁미망인의 육체적 욕망이 가부장제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순종적이며 순결한 전통적 여성상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과 혐오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당시의 세태와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통제의 대상이었던 전쟁기의 사회의식을 반영한 것이다.⁴⁵⁾ “참된 인간생활이란 육체와 정신이 서로 조화된 토대 위에서 성립될 수 있다”⁴⁶⁾는 작가의 편집자적 논평은 전쟁미망인의 타락한 성윤리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기의 종』에서는 삼각연애갈등이 전쟁미망인 민영심을 중심으로 내면화되고 있다. 이는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연애감정과 육체적 고독의 과제가 연애서사 진전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기 여성의 젠더의식의 중심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공포와 원한의 십자가와 가부장제의 희생양

정비석의 『세기의 종』에서는 가부장제 의식에 의해 희생된 여성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적 상징성을 표현방식으로 차용하고 있다. 민영심에게 있어서 ‘서재’라는 공간은 에덴동산이며 천국으로 비유되고 있다.

사실 민영심 여사는 서재에만 들어앉으면 남편이 금방 달려와서 자기를 포옹해 줄 것만 같았다. 신혼 시대의 즐거운 그날그날에 남모르는 비밀을 가졌던 것도 그 서재였었고, 팬스를 좋아하는 남편이 전축을 틀어놓고 아내에게 춤을 요구하던 곳도 그 서재였었다. 그리고 민영심 자신이 독서를 방해해가며 소녀처럼 수집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포옹을 갈망했던 곳도 바로 그 서재였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는 서재야말로 에덴 동산이요, 지상 천국이었던 것이다.⁴⁷⁾

민영심의 의식세계에서 서재는 남편의 추억과 보호가 있는 시공간이다.

45) 이입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 앞의 책, 10~11쪽.

46) 정비석, 앞의 책, 537~538쪽.

47) 정비석, 앞의 책, 35~37쪽.

에텐동산이며 지상천국인 서재는 남편을 중심축으로 하는 질서가 있는 가부장제 사회를 의미하며, 결혼을 전제로 한 ‘가정’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여성이 인생목표를 ‘결혼’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안혜옥이나 민영심의 경우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이었을까. 인생의 목적은 경우와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혜옥과 민영심의 경우에는 「결혼」이란 것이 인생의 당면목표였을지도 모른다.

신체적으로 불구가 아닌 이상, 왕성한 청춘기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생의 본능이요, 생리적 욕구이기도 하다. 안혜옥은 의식 무의식간에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영심은 그와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사모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수음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 육신은 육신대로 피리 되었다.⁴⁸⁾

결국 민영심은 이루어지지 못할 첫사랑에 대한 사모의 감정으로 정신적인 수음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육체적인 고독에 매여 매음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는 안혜옥과는 대조적이다. 안혜옥은 인공유산을 통해 공산주의자였던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비서로 취직하여 경제적인 과제를 해결하였으며, 댄스파트너였던 배인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안혜옥은 가부장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결혼제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영심은 남편이 북으로 납치되어 전쟁미망인이 된 이후 육체적 고독의 문제를 결혼제도를 통해 승화시키지 못하고 매음녀로 전락할 비극적 운명의 길을 치닫게 된다. 결국 가정이 에텐동산이며 지상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존재유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민영심을 통해 보여주는 전쟁미망인의 비극적 운명을 창세기의 이브의 과실과 원죄의식에서 찾고 있다.⁴⁹⁾ 창세기 에텐동산은 ‘선악과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율에서 천국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의 과실로 계율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에텐동산에서 쫓겨난다.⁵⁰⁾ 민영심은 이러한 원죄의식과 비극적 운명을 죽음의 형식을 통해 승화시키고자 한다.

48) 정비석, 앞의 책, 542~3쪽.

49) 정비석, 앞의 책, 410~411쪽.

50)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9절, 16~17절, 21~25절; 창세기 3장 1~24절.

유서를 완전히 읽고 냈을 때에는, 죽음과 마주 앉아 있는 자신이 거룩하게 생각되었다.

민영심은 옷깃을 바로 잡으며 책상 앞에 다시 한 번 단정히 앉았다. 공포와 원한은 사라지고, 오직 거룩한 감정뿐이었다. 자기 자신이 신의 존재인 것처럼 성스럽게 느껴지기 까지 하였다.

민영심은 고요히 손을 내밀어 약을 집어 들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하얀 알약들을 잠시 디러다 보았으나, 별로 공포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 보다도 성스럽고자 하는 욕망이 더한층 강렬했던 것이다.⁵¹⁾

죽음을 마주한 전쟁미망인 민영심은 “공포와 원한의 감정은 사라지고 거룩한 감정”만 남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 의식에 의해 구속되었던 정서에서 해방감 혹은 자유함을 느끼는 한편 불행에 처한 전쟁미망인을 위한 희생양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선희의 발언을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박변호사는 신의라거나 도덕 같은 것을 생각해서, 사랑에 있어서도 신사로서의 예의범절을 지키려고 그런 태도를 취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요구하는 사랑이란 그런 열간시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불 같은 열과 결사적인 심각성이 있어야 하는거예요 박선생처럼 중학교 훈육시간에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사랑은 선량한 여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뿐이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여자들은 타락시킬 뿐이에요! 민영심 여사야말로 그의 좋은 표본이 아니고 뭐겠어요?」

장선희 여사의 추궁은 어지간히 신랄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의분을 느낀 모양이었다.

박기철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민영심의 자살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부인할 용기가 없었다.⁵²⁾

장선희는 “신사로서의 예의범절과 교훈적 사랑”은 결국 여성의 생명을 빼앗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첫사랑 박기철이 사랑없는 결혼이 세속적 제도라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민영심과의

51) 정비석, 앞의 책, 554~555쪽.

52) 정비석, 앞의 책, 566쪽.

사랑을 외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질서에서 요구하는 윤리가 전쟁기 미망인들의 현실적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시대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결국 전쟁미망인 민영심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지만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한 주체적 여성의식을 지닌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부장제라는 공포와 원한의 십자가를 통해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만 민영심은 가부장제의식에 의해 희생된 전쟁기 미망인의 젠더의식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정비석의 『세기의 종』은 전쟁기 사회상을 전쟁미망인의 애정갈등과 의식 세계를 통해 그린 신문연재소설이다. 전쟁기 사회상은 전쟁미망인, 아프레결, 도시로 이주한 농촌여성 등 여성인물의 형상화와 삼각연애갈등 양상을 통해서 드러나며, 국가재건과 자본주의적 욕망 추구는 남성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세기의 종』은 여주인공 민영심을 중심축으로 한 삼각연애갈등 구조를 통해 전쟁기 여성의 젠더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애갈등구조는 본격적으로 인물간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여주인공의 내면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전쟁기 여성들의 과제였던 육체적 고독의 문제를 가부장제의식에 종속된 전쟁미망인의 젠더의식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기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의식은 전쟁미망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 그러나 비극적 운명으로 선택된 죽음의 방식은 종교적 숭고미의 형상을 획득하고 가부장제에 의한 희생양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비석, 『세기의 중』, 세문사, 1954.

2. 단행본

강만길, 『고쳐쓴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6.25전쟁에서 4.19전야까지 1950년대편』1, 인물과사상사, 2004.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정한숙,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출판부, 1977.

최일성·김현정, 『한국여성사』, 백산자료원, 2006.

한국학역사연구회, 『역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 논문

강진호, 「전후 세대와 소설의 존재방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3집, 2000, 5~23쪽.

강찬모, 「부인명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의 자각과정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5집, 2007.6, 263~279쪽.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35, 2008.12.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 『국문학보』14, 1997, 49~88쪽.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학영상』5권 1호, 2004.6, 27~54쪽.

김영애, 「자유부인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28, 2005, 207~226쪽.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비평문학』34, 2009.12.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과 위험한 전쟁미망인의 문화정치학-정비석의 『유혹의 강』(1958)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9, 2010.12, 211~229쪽.

김일영, 「정비석의 신문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풍속의 양상」, 『인문과학연구』4, 2003, 35~50쪽.

김지영, 「정비석초기연애소설연구」, 부산대석사학위논문, 2002.2.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관한연구, 『우암어문논집』7, 1997.3, 86~127쪽.

박유희, 「자유부인에 나타난 1950년대 멜로드라마의 변화」, 『문학과 영상』6권 2호, 2005.11, 28~39쪽.

- 서현석, 「“자유”와 “부인”의 불가능한 변증법-자유부인에 나타난 단절의 미학」, 『영화연구』 22집, 2003.12, 124~144쪽.
- 안미영, 「정비석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고찰」, 『개신어문연구』21, 2004, 429~457쪽.
-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2005, 139~165쪽.
-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비평』8, 2000.12.
-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의 삶」, 『진보평론』16, 2003.6.
- 정미경, 「1950년대 ‘자유부인’의 성정치」, 『여/성이론』6, 2002.7.
- 정중현, 「미국혜게모니하 한국문화재편의 젠더정치학」, 『한국문학연구』35, 2008.12.
- 주창규, 「“노란 피부, 하얀 가면무도회”로서 자유부인의 춤무로 여성관객에 관한 분석」, 『영화연구』21집, 2003.
-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열풍 :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2009.4, 285~293쪽.
- 최미진,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연구」, 『현대소설연구』21호, 2004, 185~307쪽.
- _____,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연구-소설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32, 2007. 12, 305~330쪽.
- _____,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18, 2007. 12, 119~153쪽.

4. 기타자료

-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9절, 16~17절, 21~25절 : 창세기 3장 1~24절.
- 김남천, 「신진소설가의 작품세계」, 『인문평론』, 1940. 2.
- 「신진작가좌담회」, 『조광』 5권 1호, 1939.

Abstract

A Study on Female Gender Consciousness during the War Period – Focusing on Cheong, Bi-seok 『The Bell of the Century (世紀의 鐘)』 –

Lee, Sang-Hwa (Sangmyeong University)

Cheong, Bi-seok received spotlight in 1954 with his popular work, 『Free Madam (自由夫人)』, published serially in 『The Seoul Shinmun』 and was publicly called as a “popular novelist”. After this, he chose to be a full-time writer and popular writer. Up until now, discussion around Cheong, Bi-seok has been mostly focused on 『Free Madam』. After the 1990's, however, as the consciousness of popular culture extended to Korean literary circles as well, Cheong, Bi-seok several works of popular culture including 『Free Madam』 have been discussed from various aspects.

This article has as its subject of analysis 『The Bell of the Century (世紀의 鐘)』, a newspaper serial novel published in 『Yongnam Ilbo』 during the war period. In more detail,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eriodic aspects of the war period with the reality that the female character of the work faces and also discuss the reality and gender consciousness of war widows with the conflicts of love triangle centering around the female main character.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 great personnel and material loss. Particularly as the male war dead increased, families without a head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is, war widows with no husband became a social issue. As the war widows' hardships of life and physical solitude in youth became an issue, their tarnished ethics of sex was highlighted.

Cheong, Bi-seok 『The Bell of the Century』 reflects such periodic issues the war widows faced during that period. Young-sim Min, the female main character, becomes a war widow as her husband is kidnapped to North Korea and is missing during the Korean War. She suffers from the conflicts between her emotional and physical solitude as a war widow and her female consciousness subordinate to traditional patriarchic order. She cannot overcome her miserable emotion as a widow in reality and faces her tragic doom to choose suicide bearing her cross of resentment towards patriarchy. The female main character, Young-sim Min's death implies the fact that she was the sacrifice of the male gender's patriarchic consciousness that could not recognize the women's reality during the war

period ultimately and saw the war widows as objects of horror or fear.

(Keywords : Cheong, Bi-seok, war widow, physical solitude, patriarchy, gender consciousness)

투고일 : 2011년 10월 30일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